

신에 대한 두려움: 인지 언어적 접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잠언 9:10)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인지적 접근' 강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잠언 9:10.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이랏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담은 이 발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도나이는 구약에서 유래하였고 일부는 신약에서 유래하였지만, 대부분은 구약에서 유래하였으며, 특히 잠언 9장 10절의 위대한 말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배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혜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더 넓은 개념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언어학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지언어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인지언어학을 일종의 필터로 활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지혜, 특히 지혜 문학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모토, 정사각형, 정사각형, 혹은 지혜 문학의 주요 출발점으로 불러 왔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언어학을 활용하여 성경적 자료를 새롭게 검토할 것입니다. 인지언어학은 이 구절의 다양한 의미론적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 자체의 간결한 진술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한 더욱 풍부한 묘사를 담고 있는 역사적, 예언적 서사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해 왔습니다. 폭스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신성한 질서의 원리, 삶의 선함이라는 개념, 그리고 성공의 보장에 대한 지적인 고수를 요구하는 양심의 한 형태로 봅니다.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특히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식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테리안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테리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복잡한 본질의 감정적 경험으로 더욱 확장하여 묘사하는데, 이는 거룩함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반감, 매력, 매혹, 경외감, 존경, 사랑, 신뢰, 믿음, 예배, 그리고 경배와 같은 반응에 선행합니다.

세 번째 폭스는 두려움과 지혜를 동일시하는 것을 피하려고 조심하며, 감정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종교와 경건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선행

적으로 발전한다는 관념에도 크게 반대합니다 . 이는 마이클 폭스와 그의 잠언에 대한 훌륭한 저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연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의 진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사체(synt agm)라고 부릅니다. 통사체는 상호작용하는 기표들의 질서 있는 조합으로, 의미 있는 전체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구가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가 질서 있게 결합된 어구가 됩니다 . 의미 있는 전체를 형성하는 상호 작용하는 기표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와 다른 언어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격,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소유격 구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 소유격, 즉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 하나님은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고,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주어, 진노이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진노는 그분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주관적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소유격 ,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목적어입니다.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지 주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이 소유격의 목적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신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 지점에서 약간 유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두려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니면 모호한 걸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를 떠올립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곤 했죠.

제가 제퍼슨 초등학교까지 딸아이를 데리고 걸어갔던 이유 중 하나는, 딸아이가 걸어 올라가는데, 마침 마약상이었던 것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철조망 같은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철조망 울타리 뒤에는 커다란 검은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아마 도베르만 핀셔나 로트와일러 같은 종류였을 거예요.

딸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개가 달려들어 코와 주둥이를 울타리에 박고 짖어대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딸을 죽일 태세였죠. 다행히 안 나왔어요. 어쨌든 딸아이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빠 는 그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아빠가 개를 돌봐주죠. 그래서 일종의 두려움, 사자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두려움, 도피, 그리고 그런 종류의 두려움 말이죠.

두려움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녀가 개에게 느꼈던 그런 두려움을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인생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 집이 있어요.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페인트칠을 해야 했죠. 집 꼭대기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40피트(약 12미터)짜리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2미터(40피트)짜리 사다리를 집 옆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꼭대기에 다다르면, 두어 개의 맨 위 가로대에 섰습니다. 꼭대기까지 가려면 아마 12~15미터(45~50피트) 정도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다리가 뻗어 있는 곳 너머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들 중 한 명에게 사다리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페인트칠해야 할 부분을 칠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고소공포증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뉴잉글랜드에 있는 저희 집에서는 북동풍이 자주 불곤 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북동풍이라고 부르죠. 시속 60~70마일(약 96~112km) 정도로 매우 강합니다. 지붕은 처음 지을 때부터 제대로 밀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널을 못으로 박고, 바람에 날리거나 솟아오른 지붕널을 다시 못으로 박아야 했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야 했죠. 지붕 공사를 할 때, 지붕 상태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곤 했어요.

지붕에 망치를 던졌는데 미끄러져 떨어지면 지붕이 가파르게 되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지붕들도 있는데, 제가 인디애나주 위노나 레이크에 있었을 때처럼요. 망치를 지붕에 던졌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망치가 있고 그 위에 있으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 지붕 위에서 굴러다닐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었죠. 여기 뉴잉글랜드의 지붕들은 훨씬 더 가파르고, 지붕들이 훨씬 더 가파르죠.

그래서 망치를 던지면 다시 내려오는데, "와,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 지붕에서 땅으로 5.5미터나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사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지붕널을 못으로 박았는데, 아시다시피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사다리를 잡아줬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갑자기 강풍이 불어 집 꼭대기에 있던 기와가 2.4미터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 꼭대기에 올라가 기와를 엮고 앉아 기와를 못으로 박았는데, 기와 몇 장은 거꾸로 다시 엮었습니다.

그래서 지붕널을 깔았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첫째, 제 사다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 부부는 빈둥거린 셈이니까요. 아들들도 다 떠나고 아이들도 다 떠나고. 그래서 아내와 저만 일하러 나갔죠.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세상에, 여기서 떨어지면 아무도 날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요. 지붕도 없고, 사다리를 잡을 사람도 없고, 괜히 위험에 처한 거라는 걸요.

그리고 갑자기,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갑자기, "세상에, 이건 정말 위험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소공포증,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스페인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와 저는 바르셀로나 외곽에 있는 정말 멋진 수도원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약 600미터(2,000피트) 높이에서 바로 아래로 똑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죠.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에, 한 걸음만 더 가면 끝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장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래가 정말 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고소공포증은 사람마다 다양한 유형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공포증도 있지만, 평생 동안 변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두려워했던 공포증이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것이죠. 거미처럼 흉측한 공포증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미를 무서워하고, 제 딸도 거미를 무서워합니다. 저희 가족은 예전에 아빠가 거미를 죽이고 거미와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아빠를 집 안팎으로 쫓아다니는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에는 좋은 면, 나쁜 면, 그리고 추한 면이 있죠. 고소공포증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좋고, 혼자 일할 때나, 누군가에게 달려들 수 있는 게 같은 경우에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차를 너무 빨리 운전할 때처럼요.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거의 비이성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은 행동보다는 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뒤로 물러서고, 한 걸음 물러나면, 더 이상 지붕 공사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대한 몇 가지 개념만 말씀드리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음 개요 차트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다양한 의미를 보여줄 것입니다. 의미의 다양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지막에 최종 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포의 다양한 의미를 소개하는 기본적인 개요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일종의 공포, 즉 공포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스터리움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tremendum . 이 말은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쓴 『거룩함의 개념』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거룩함과 두려움, 그리고 이 엄청난 경외감을 연결시킵니다 . 신은 너무나 위대해서 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정말 멋져요. 그냥 압도적일 뿐이에요. 어쩌면 다른 표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뭔가가 너무 좋을 때, 그게 나를 압도하고 모든 걸 압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 일 것 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포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신비로움을 뜻하는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tremendum , 신의 경외심, 두려움, 공포, 떨림, 뒤흔, 그런 종류의 것들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희석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에 주의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일서 4장의 어떤 구절을 인용할 텐데, 몇 분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세요. 이 신비에는 공포, 두려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엄청난 감각

.

일종의 도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자주 사용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종종 언약적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약이나 순종에 더 가까운 내용일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순종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숭배, 제사, 성전 등을 언급하는 일부 제의적 구절에서는 종종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예배나 경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심과 경건함,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점에 집중합니다. 이는 종교적 맥락에서 적절하며, 종종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지혜 문학에서 이 단어는 종종 미덕이나 품성이라는 개념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며, 그런 종류의 개념입니다.

그건 좀 더 미덕과 인격에 대한 생각이에요. 두려움과 처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제 생각에 우리 대부분이 적어도 언젠가는, 어쩌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

하지만 저는 자라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규율을 중시하는 분이셨죠. 그건 그렇고,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형, 그리고 아버지는 개구리 사냥이라는 것을 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아버지는 나가셔야 했는데,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늪으로 나가서 개구리 패들이라는 것으로 개구리 머리를 때렸습니다.

참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너비도 그 정도, 길이도 그 정도였고, 손잡이도 있었어요. 개구리가 튀어나오면 머리를 때리는 거죠. 마치 두더지 때리기 게임처럼요. 그리고 개구리를 집으로 가져와서, 바지에서 다리를 잘라서 넣어두는 거죠.

개구리를 그 안에 넣고 집에 와서 먹었는데, 개구리 다리가 나왔고 닭고기 맛이 났어요. 어쨌든, 개구리 다리를 먹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방법을 배우셨죠.

그래서 항상 개구리 헤엄이 있었죠. 사실 형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벌써 20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제 형은, 아시다시피, 부모님의 모든 물건들을 나눠 갖고 있고요 .

그러자 동생이 “테드, 개구리 패들 갖고 싶니?”라고 묻 더군요 . 개구리 패들은 항상 옆에 있었고, 아빠는 훈육할 때 항상 저쪽에 있는 패들을 사용했어요. 동생과 저는 엉덩이에 패들을 사용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엉덩이에 패들을 사용 했고, 그러면 겁이 나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랬고, 그는 우리에게서 절대 그런 걸 안 써봤고 뭐 그런 것도 안 써봤죠. 우리는 개구리한테는 많이 써요. 그리고, 어쨌든, 그 노, 그러니까 아래층에 그 노가 있는데, 제가 자라면서 겪었던 온갖 일들을 떠올리게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노가 불러일으킨 두려움이 어떤 면에서는 저를 바른길로 인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이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 피조물로서의 자질, 그리고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닫는 또 다른 경험입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실제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마치 제 딸이 그 큰 개에게서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력함이라 는 개념은 일종의 겸손으로 이어지고, 겸손함이나 피조물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신이시며,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며, 그렇기에 경건함으로 나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식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 곧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 규례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집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실 모든 하나님의 두려움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외국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일반적인 도덕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들이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게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쓰일 겁니다. 이스라엘 밖, 즉 언약 밖의 도덕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쓰일 겁니다. 이건 그냥 몇 가지 일반적인 범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발표의 다음 부분에서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이 주제의 언어학적 배경 , 환유란 무엇이며, 제가 환유가 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환유는 종종 단순한 비유, 수사적 기법, 문학적 수사, 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 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해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과 신을 합치면, 짠, 이제 신에 대한
두려움이 뭔지 알게 됐죠."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더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환유는 우리에게 몇 가지 발전을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를 합치면 소프트볼이 됩니다. 소프트볼은 공을
합친 것이고, 크고 오래된 소프트볼은 더 부드러운 공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볼이라고 부르는 거죠.

초인종이 있죠. 문 옆에 있는 종이요. 그러니까 초인종인 거죠.

네, 그것들은 서로 더해져서 침실이나 침대가 있는 방이 되고, 거기서
잠을 자죠. 네, 생일은 탄생이죠. 그리고 생일은, 당신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출산 주를 정해요.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의미론에 대한 그런 덧셈식 접근 방식은 조심해야 해요. 가끔은 효과가
없거든요.

음, 생일이시겠네요. 그럼 나비+파리, 나비가 뭔지 말해 봐요. 나비를
떠올릴 때 버터와 파리가 떠오르나요? 그렇게 어울리진 않잖아요.
파인애플은 소나무에 사과를 더한 것인데, 둘을 합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블루베리, 블랙베리가 있죠. 그런데 딸기도 있죠. 처음 두 가지 색깔이
베리의 색깔을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죠. 블루베리, 블랙베리.

하지만 딸기를 사러 가면 "와, 빨대는 어떻게 생겼지?"라고 생각하시죠.
딸기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마트에 파는 딸기는 대부분
골판지 맛이 나지만, 빨대 맛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빨갭게 익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요즘은 다른 품종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인지적 본질,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환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러니나 그런 식으로 끼워 넣는 수사적 기법이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서 과장법, 강조, 아이러니, 반복, 풍자 등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복선을 띄우는 식으로도 쓰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온", "내 아들을 불렀다" 같은 비유적

표현을 암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는 온갖 종류의 말장난이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말장난을 아주 잘했습니다. 포괄과 포용은 종종 수사학적 기법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같은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책받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시작해서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 클루시오(inclusio) 또는 포함(inclusion)이라고 합니다. 북엔드(bookend)라고도 하죠. 그리고 카이아스무스(chiasmus)도 있는데, 이건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카이아스무스에 큰 개념이 있었는데, A 원소 다음에 B 원소, 그 다음에 B 원소, 그 다음에 B 원소가 오는 거예요. A와 A, B, B를 보면 영어의 X처럼 X 모양이 나오는데, 그리스어로 키(key)라고 합니다.

이것을 카이아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가 일치하고, 두 번째 요소와 세 번째 요소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B, B 소수, A 소수, 그리고 X와 같은 형태로 이어지는 카이아즘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과 다른 곳에는 그런 표현이 백만 가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환유라고 말할 때, 비유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지언어학은 우리 뇌가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의 단어만 있다면, 마치 일대일 대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일대일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알아야 할 단어는 수십억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동차가 있고, 테슬라와 도요타처럼 여러 종류의 자동차가 있죠

도요타에도 RAV4, 캠리, SUV 등 다양한 차종이 있고, 같은 차종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물을 구조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유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지언어학에서 은유와 환유는 서로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은유와 환유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환유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환유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촉발하는 데 사용되고, 또 한 단어가 다른 무언가를 촉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홀이 나오리라, 홀, 홀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홀”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정말 홀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왕을 대신하는 홀을 의미하는 건가요? 야곱에게서 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면, 정말 야곱과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람이 “야곱에게서 홀이 나오리라”라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대신하는 거죠. 야곱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홀은 실제로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우리 뇌가 이렇게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뇌가 수십억 개의 단어를 배우는 것을 멈추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은유와 환유를 통해 언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만 야콥슨은 은유와 환유의 비교 및 대조에 관한 논문에서 환유를 두 극 중 하나로 설명합니다. 은유는 한 극에 위치하며, 사고방식 전체는 패러다임적 대체와 정신적 범주 간 매핑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환유는 정반대 극에 있습니다. 다른 극에는 환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유는 범주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환유는 범주 안에서의 사상, 즉 더 연속적인 유형의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유를 조금 사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요.

그건 은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예요.

하나님은 목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리로다. 지금 4월인데 뉴잉글랜드에는 눈이 내리고 있지만, 이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좋아요, 주님, 혹은 시편 1장 말씀처럼, 그분은 나무와 같으실 것입니다. 자, 인간과 나무의 관계가 참 흥미롭네요.

인간은 어떻게 나무와 비슷할까요? 음, 나무는 몸통이 있고, 우리는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감각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은유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나무와 같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녀는 잎도 가지고 있고. 좋아, 하지만 어쨌든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좋아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한 가지 범주를 나타내는 거죠. 나무는 사실 사람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둘은 별개의 의미적 범주인 거예요.

하나는 식물 속의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식물과 같습니다. 풀이 시들어 쇠퇴하는 것처럼 어떻게 식물과 같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라지는 거죠. 네, 한 범주에 여러 식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비유되는 식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여러 범주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져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으십니까?

그래서 과일과 사물들이 나무와 인간, 두 가지 다른 범주 사이에 매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유입니다. 반면에 시편은 매우 은유적입니다.

그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시편에서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된 표현입니다. 그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시편에서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된 표현입니다. 그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시편에서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된 표현입니다. 그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좋아요, 시편에서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좋아요, 시편에서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좋아요, 시편에서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는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좋아요, 시편에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는 나무와 같으리라.” 좋아요, 저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제가 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주님이신 나무는 제 목자입니다. 잠언이나 지혜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좀 더 환유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게으른 자의 부지런한 손과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정말, 부지런한 손, 부지런한 손 대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손 대 게으른 사람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음, 게으른 사람은 사람, 부지런한 손을 뜻합니다. 부지런한 손을 언급할 때는 실제로 부지런한 사람을 뜻하고, 손은 종종 일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말은, 손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뜻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악인의 입이 있잖아요. 악인의 입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그 입을 당신 입에서 떼어내야 해요. 단순히 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입은 악인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악인은 입을 이용해서 종종 악행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일종의 환유입니다. 입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래서 범주를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범주 안에서, 아래로, 연속적으로, 범주를 따라 아래로, 사람은 손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는 강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범주를 넘어서는 나무와 같습니다.

환유는 일종의 하위 범주화이며, 이를 제유법 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환유는 단순한 제유법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부분을 전체로 표현하는 것이죠. 악인의 입이나 부지런한 자의 손처럼 말이죠. 따라서 환유는 하나의 개념적 실체나 매개체가 대상이라는 개념적 실체에 정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실제로는 지시하는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의 목표를 지칭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환유가 목표를 지칭하는 매개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지런한 사람을 지칭하고, 악한 자의 입은 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량과 표적이 있죠. 차량과 표적이요. 좋아요, 이제 비유를 들어볼까요? 좋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다의성, 즉 환유의 여러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환유가 얼마나 다재다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여러분, 학교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그럼 학교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환유적으로 학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르벤은 방학을 가려면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학교는 무슨 뜻일까요? 방학을 가려면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음, 거기서 학교는 학년을 뜻해요. 그러니까 학교, 즉 학교라는 단어는 사실 학년, 즉 방학을 보낼 수 있는 시기를 뜻해요. 이걸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더 이상 어떤 학교든 그만둬야 해요. 안 그러면 낙제할 거예요.

더 이상 학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거기 학교는 교실 수업을 말하는 건가요?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수업에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안 그러면 낙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교는 학년도였습니다. 이게 학교, 즉 교육, 교육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로빈이 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로빈은 학교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 이사회일 수도 있는데, 학교를 지칭하는 겁니다. 학교는 학교 이사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지칭하는 것처럼, 학교 이사회라는 다른 단어를 지칭하는 매개체가 사용됩니다. 학교 이사회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학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칭하는 거죠.

둘 다 같은 학교 범주 안에 있는 범주지만, 거의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올해 임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는 올해 임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학교, 즉 경영진, 즉 기본적으로 학교 행정부, 즉 학교 이사회는 학교 급여 인상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즉 행정부는 급여 인상을 주지 않지만, 학교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차’나 ‘침대’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네요. 이제 자러 갈게요. 알았어요.

자, 자러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침대는 뭘 뜻할까요? 음, 침대는 그냥 “잠들겠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자러 간다”는 “잠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다른 맥락으로 가볼까요? 저는 결혼도 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잠자리에 들겠다고 하면, 아마 섹스를 하자고 하는 것 같은 요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자리 에 들거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코로나에 두 번이나 걸렸거든요. 아시다시피, 몸이 안 좋거든요. 잠자리에 든다는 건 몸이 안 좋아서 누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침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유를 살펴보고, 이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논의에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언어학적 사고방식입니다. 우선,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제유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범주의 환유법의 일부로서 제유법입니다. 제유법은 환유법보다 더 구체적이죠. 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정말 멋진 차나 멋진 차를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야, 휠 멋지네."라고 말할 때, 정말 그의 허브캡이나 타이어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멋진 바퀴군요. 바퀴를 다시 차량에 장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군요. 바퀴, 즉 차량을 차량, 즉 표적에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멋진 바퀴구나."라고 말하죠.

좋아. 그러니까 그게 전체를 위한 부분이겠군. 악한 자들의 입 말이야.

제유법이에요. 제유법.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를 위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일종의 환유죠. 구성원을 위한 범주, 즉 범주가 지칭되는 곳이 구성원에게 다가가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피임약이라고 하셨죠. 옛날에 피임약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피임약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피임약이 발동한다는 말씀이, 피임약이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가는 수단이 되는 거죠. 피임약은 특정 구성원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범주입니다.

좋아요. 그런 종류의 반대 개념이 있죠. 그 카테고리의 회원이라면, 제록스 기계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복사기라고 하면 복사기로 가서 복사하는 거죠. 그게 요즘 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본은 필요 없어요. 이제 모든 게 웹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예전에는 복사기로 복사하라고 하셨죠. 그건 다시 말해, 회원별로, 제록스라는 회사가 제록스 기계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복사기도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록스는 너무 크고 보편화되어서 다들 그냥 제록싱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건 뭔가를 복사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제록스는 현재 복사기라는 기계의 전체 범주를 지칭하는 회원입니다. 현재 복사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록스라고 부릅니다. 제록스라고 하면 제록스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록스라는 기계는 그 범주 전체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회원의 범주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회원은 대상이며, 회원은 범주 복사를 위한 제록스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은 범주에 속합니다. 특정 회원에게는 일반 회원이 있고, 특정 회원에게는 일반 회원이 있습니다.

다 큰 남자아이들은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큰 남자아이들은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아이들이, 예를 들어 울보일 때처럼 특정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아, 우리는 요즘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어쩌면 울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큰 남자아이들은 울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 일부는 남은 인생을 통해 그 말이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 아닌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위한 일반 개념, 특정 대상을 위한 일반 개념이죠. 인지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여기 두 세트의 메모가 있습니다. 이 환유, 즉 신비주의적 사고방식의 다른 범주들은 일반 개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큰 놈들은 특정 상황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군요. 복사 좀 해 봤습니다.

복사를 좀 했는데, 그건 일반적인 종류의 일에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책을 쓰는 행위의 대리인이죠. 책을 쓰는 행위, 즉 책을 쓰는 행위는 대리인, 즉 저자입니다. 책을 쓰는 저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행위, 즉 책을 쓴다는 아이디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단어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 즉 '목표'를 촉발합니다. 목표는 바로 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자가 행동을 일으키고, 그 행위자를 사용하여 그 행동, 즉 목표 행동을 촉발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행동의 결과,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조경은 어떤 행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결과를 내는 것이죠. 그 행동은 정원 가꾸기, 심기, 가지치기, 수확 등 실제적인 행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을 조경한다는 것은 정원을 만들고 조경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조경은 어떤 행동, 즉 심기,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유형의 환유법이죠. 행위자를 위한 도구, 즉 펜이 쓴 도구 말입니다. 글쎄요, 이제 펜은 쓰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했든, 아니면 알았든 간에, 이제는 자동 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펜을 들고 글을 쓰면, 네, 펜은 기본적으로 작가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 펜이 썼죠, 펜이 기사를 썼죠, 펜이 기사를 썼죠. 그러니까 도구 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할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은 모두 일종의 환유이고, 또 다른 유형은 생산자를 제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할리, 그 할리, 그 할리, 정말 멋지네요. 자, 제가 할리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들은 정말 멋진 오토바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할리가 멋지다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할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겁니다. 할리, 즉 제작자, 프로듀서 할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터사이클이라는 제품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즉, 할리라는 단어는 모터사이클을 지칭하는 겁니다. 즉,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자, 집단을 위한 장소인 거죠.

우리 모두 워싱턴이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도시를 결정한다고요? 너무 많죠. 네, 워싱턴이 결정했다고요? 워싱턴이라는 도시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의회가 결정을 내리고, 법을 만들고, 규제 체계를 만드는 모든 것을 워싱턴이 결정한 겁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은 도시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타겟팅 대상은 법을 만드는 의회나 규정을 만드는 규제 기관입니다. 하위 이벤트를 위한 전체 이벤트가 있는 셈입니다. 전체 이벤트는 하위 이벤트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빌이 보스턴으로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빌이 보스턴으로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이 보스턴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에는 하위 범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사건을 하위 사건으로 나누면 됩니다. 차에 기름을 넣고, 운전하고, 경로를 계획하고,

구글이나 다른 곳에 지도를 그리고,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한다는 건 이 모든 사건을 구성하는 모든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즉, 전체 사건이 하위 사건을 촉발하는 거죠. 일련의 하위 사건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결과 또는 원인이 있습니다. 존은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존은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아, 얼굴이 뚱해 보이시네요.”라고 하시죠. 뚱한 표정은 슬픔을 촉발하는 비유로 쓰이잖아요. 그 효과가 바로 뚱한 표정이에요.

원인은 슬픔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슬픔이고, 수단은 침울한 표정이에요. 이게 바로 수많은 환유법과 그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예죠.

우리 언어 곳곳에, 특히 잠언서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시다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 이름은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하셈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그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나 엘로힘, 혹은 어떤 이름을 쓰든 하느님, 즉 하느님을 나타내는 환유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름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신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환유 같은 거죠. 자, 가장 명확한 예로, 이런 종류의 환유, 그리고 우리가 은유와 환유에 대해 논의해 온 것, 범주를 넘나드는 은유, 그리고 온갖 방식으로 범주를 세분화하는 환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주, 아주 다면적인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비유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은 기본적으로 이삭에 대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이삭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환유입니다.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두려움이 있다면 말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많은 번역본에서 대문자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실제로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두려움은 이삭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촉발합니다. "좋아요. 만약 제가 그랬다면, 당신은 분명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하나님을 촉발하는 분명한 예입니다. 그 맥락에서 두려움은 환유적이고, 환유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촉발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성한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수년 전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쓴 『신성함』(The Holy)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그의 신비주의(mysterium)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트레멘덤 .

이제 이 신비는 무엇입니까? tremendum ? 저는 이것을 신성한 두려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신성한 두려움은 신비로운, 어쩌면 더 정확히 말하면 신비로운 텍스트입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얻는 것은 바로 공포라는 개념입니다. 공포는 곧 공포입니다. 좋아요.

그건 경외심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길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공포이고, 떨리고, 끔찍합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하지만 그것은 또한 경이로움, 위엄 , 경이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위대함, 또는 순결함에 대한 경이롭고 놀라운 반응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 장엄하고 겸손해지는 무언가를 볼 때, 두려움과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관념도 함께 생겨납니다.

알겠어요. 산이나 바다에서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풍경을 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산도 좋고요. 로키 산맥에 있는 웅장한 산들을 보면 정말 멋지죠.

신비로움 을 이해합니다 tremendum . 당신이 갈 때, 저는 캘리포니아 라합 브라 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레슬리 앨런이라는 친구가 에스겔서를 가르치는 테이프를 들으러 차를 몰고 갔어요 . 당연히 산을 넘어 덴버까지

갔고, 그다음 산을 넘고, 네바다로 내려간 다음 LA까지 갔죠. 데스 밸리라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했어요.

저는 사막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친구 두 명과 함께 사막을 걸었는데 탈수 증세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그 후, 사막에 가서 데스 밸리를 보면, 제 아들이 해병대 출신이라 모하비 바이퍼 같은 차에서 훈련을 받았던 곳이죠. 사막에 가서 밖을 내다보니,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온통 사막뿐이었어요.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차에서 나올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멀고, 거의 못 가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고, 정말 무서웠어요.

사막을 보세요. 사막은 정말 아름다워서 사막을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존재가 너무 커서 여기 양동이에 빠져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어쨌든, 데스 밸리를 건너는 건, 이른 아침 아직 추울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을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그 미친 곳을 차로 지나가는 데 두 시간이 걸렸어요. 어쨌든, 이 장엄한 위대함과 경외감은 이런 종류의 우울함과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고, 많은 경우 신과 그의 거룩함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루돌프 알트만의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에요. 루돌프 오토의 책과 신의 순수함과 신의 위대함에 대한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신의 위대함을 깨닫고, 지금 허블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탐험하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광대함을 깨닫고, 우리가 지구라는 작은 점에 있고, 저는 지금 매사추세츠라는 작은 점에 있고, 저는 집 안에 있고, 우주가 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훨씬 더 크고, 이 광활한 공간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돼요. 태초에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고,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저 믿을 수 없을 정도였고,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경외로운 분인지 깨닫게 되었고, 당신은 와우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사로잡는 와우 요소였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한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네, 야레입니다. 야레는 히브리어로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러 오셨는데,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거룩함 사이의 연관성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같은 종류의 것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의 이사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무너졌다. 이러한 무너짐의 감각, 겸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숨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3장 32절, 사도행전 7장 32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떨었고, 모세는 떨면서 감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네, 사실 쇠렌 키르케고르의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인 것 같은데,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서 나는 연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우리 야레어,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경외심 같은 게 아닙니다.

아니요, 이건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떨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네, 제 딸이 그 검은 개 옆을 지날 때, 그녀는 거리를 원합니다. 개가 자신을 잡아채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쇠사슬을 댈 수 있는 물건들을 원하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요.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야, 네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가 들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죽으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앞에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이나? 너희가 보내지 않는 것이다.

신비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결과의 유형입니다. 트레멘덤이라는 개념은 출애굽기 14장 10절과 30절, 31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장, 31장입니다.

여기가 그들이 갈대 바다, 즉 홍해를 건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책은 시작과 끝의 중요성,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신비로움으로 끝납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세요. 파라오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뒤쫓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주님을 두려워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도 연관성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했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과 믿음, 그리고 그분의 종 모세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바다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그들이 건너가다가 이집트 파라오가 건너오자 그에게 무너지는 것을 본 후에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뭐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행적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행적들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두려움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거나,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두려움과 결과라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구절에서 전형적인 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과 인과 관계의 연결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현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테오 = 하나님, 파니 = 출현, 하나님의 현현, 신현, 신현.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우리처럼 듣고 살아온 사람이 육체를 가진 자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종과의 연관성을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내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 백성이 당신들에게 한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라, 그들이 한 모든 말이 옳습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이봐, 그들이 한 말이 옳았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모세에게 반항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들으시고 "이제 내적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난 뒤에는 그들이 한 말이 모두 옳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하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영원히 잘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순종과 이 신비를 촉발한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신명기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좋아요. 이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는 다른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시편 89편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6절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 41장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을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의 맥락을 좀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황하고 겁먹는, 이런 두려운 반응. 좋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NIV는 "우리가 당황하고 두려워하도록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이라고 말합니다. ESV는 "당황하고 겁에 질려"라고 표현합니다. NIV는 "당황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은 "이 사람들이 음모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대해 네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음모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을 구분하며,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서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나를 두려워하라.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을 너희가 거룩하게 여겨야 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거룩함과 두려움의 연관성에 주목하라. 그분이 너희의 두려움이 되리라.

그는 당신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서는 단순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두려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성소가 되리라.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넘어지는 반석이 되며, 울무와 덧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실 때, 이러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란이나 시리아가 사마리아와 유다를 향해 임박한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네가 두려워해야 할 자다. 좋아. 선지자들 아래로 뛰어드는 것도, 이 신비 의 동일한 개념이다. 엄청난 아이디어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10장 7절에 나옵니다.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 만국의 왕이시여. 자, 이것만 보세요. 그가 드러내는 대담함 말입니다. 그는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사적 의문문은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사적 의문문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예전에 제가 가르칠 때 수사적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수사적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손을 들고 질문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수사적 의문문은 의문문의 형태를 띤 진술문입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그건 진술문입니다.

당신은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할 겁니다. 답은, 답은 없습니다. 그건, 그건, 그건 질문의 형식을 띤 진술일 뿐입니다.

뭔가를 지적하거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죠. 때로는 수사적 의문문이 비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수사적 의문문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쓸 때가 장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열방의 왕이시여,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왕을 연결 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시니 누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왕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왕과 인간 왕 둘 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누가 왕중왕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는 대답함. 좋아.

참으로, 이는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니, 너와 같은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은 자가 없도다 .

신은 정말 특별해요. 사람들은 이걸 '비교 불가능'이라고 부르죠. 신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를 비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본 어떤 것도 그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는 완전히 독특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창조물인 온 우주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창조자라는 완전히 다른 범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는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가 아니겠느냐?"

그분은 이 모든 장엄한 일들을 행하셨고, 특히 창조와 출애굽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 기록으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며,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 이집트에서의 탈출, 출애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비 의 기초입니다. 트레멘덤 .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위대함과 경외심과 함께. 시편 47편 2절과 3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주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심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왕으로 쓰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해. 알았어.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우리 아래에, 열국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두려움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는 "음, 구약 성경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때?" "이걸 봐." 변형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형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대화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보라,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치 신이 여기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을 뚫고 나타나셔서, "와, 애가 내 아들이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좋아. 애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하늘에서 예수님께 내려오는 신현(神現)의 음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신의 현현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일어설 겁니다.

음,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어쨌든 그건 신성한 두려움이에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각 속에 신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세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신께 얼마나 경이로운지 말해보세요. 사실, 그 단어는 '끔찍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죠.

얼마나 무서운가. '무서운'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네 행위는, 네 행위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당신의 능력 안에서 너무나 위대해서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에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은 움츠러든다는 생각과 두려움에 찬 반응을 갖게 됩니다.

움츠러드시네. 온 땅이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연관성을 주목하시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좋아요.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온 땅이. 이것은 시편 66편 3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63편, 66편, 죄송합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온 땅이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셀라) 와서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이 두려우니라.

그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출애굽. 그들은 걸어서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거기, 거기에서 우리는 그의 권능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 눈은 이 나라를 감찰하십니다. 반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높이지 말지어다.

두려움, 움츠러들기,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겸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는 이 점이 특히 잠언서뿐 아니라 여기와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스터리움 에 대해 몇 구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아이디어. 잠언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거 좀 봐. 왕과 야훼가 둘 다 두려워해야 할 곳이야. 아들아, 잠언 24장 21절.

아들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과 왕, 곧 인간의 왕을 경외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과 연합하지 말라. 22, 24, 22절. 재앙이 그들에게서 갑자기 일어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재앙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 재앙을 가져오실 수 있으므로 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가져올 파멸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왕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티셔츠 차림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네요. 하지만 두려움도 있고, 왕께서 온갖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왕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 무력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시편 76편 12절 말씀도 계속됩니다.

누가 군주들의 영을 끊어 버리겠습니까? 세상 왕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왕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세상 왕들은 왕들을 세우시고 낮추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왕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12장, 죄송합니다. 시편 2장 11절입니다.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의 연관성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떨림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과 두려움에 대해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움 입니다 떨림 , 이 경외롭고 압도적인 공포, 두려움. 시편 2장 11절에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구절은 평행합니다. 떨림으로 기뻐하십시오 .

두려움에 어울리는 것, 신에 대한 두려움, 그 앞에서 떨리는 마음.
그들에게 키스해 줘. 꽤 멋진 이야기.

11절과 12절입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노하실 것이요, 너희가 길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분의 진노가 속히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음, "그분께 피난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생각을 촉발하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제 시편 2편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해 보세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좋아요. 2장은 어떻게 끝나나요? 그리고 그분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과 2장 사이에 이런 인클루전이
있는데, 마치 두 시편을 하나로 묶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이 인클루 전이 두 시편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꽤 멋진 작품이죠. 시편 42편과 43편을 보시면, 두 시편을 하나로
연결하는 흥미로운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음, 음,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형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그 전에 먼저 요한일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사용하여 두려움, 떨림, 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두려움이라는 개념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테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인용하는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저기 봐.” 그래서 우리는 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음, 요한일서 4장 18절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형벌 사이의 이 연관성,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종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 개구리 노 이야기처럼, 제가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배워야 했고, 그를 존경하게 됐죠. 그리고, 음, 그리고 좋아요.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는 두려움의 일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압도할 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참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말아야 할 다른 종류의 두려움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벌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지혜를 버릴 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맥락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다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두려움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즉 완벽한 두려움, 사랑을 던지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을 다른 모든 두려움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인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주의하세요. 그렇게 하면 결국 4분의 3 이상의 의미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성경에 있을까요? 답은 ‘네’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그 연관성을 알아차리세요.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세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죠. 좋아요.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그 결과는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순종한다는 이 개념에 순종이 내재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은 연결, 두려움, 섬김,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과 당신을 다스리는 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른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의 손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임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것이 새 왕이 될 방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

그 왕을 원하십니까 ?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신께 기도했고, 천둥과 비가 내렸습니다. 신의 현현, 즉 신으로부터의 신의 응답은 실제로 천둥과 비 속에 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죄와 왕을 구하는 악에 더해졌기에 두려운 반응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하고 바른 길을 계속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2장 24절, 24절,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신실히 섬기라. 다시 말하건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결과를 인과응보로 삼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신실히 섬기라.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하라.

하지만 네가 악행을 고집하면 너와 네 왕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사울아. 형벌로 인해 두려움이 촉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을 보면, 이사야가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아도니야를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실상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으려 했던 걸 기억하세요? 나단과 밋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 아도니야가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기드론 골짜기로 이어졌습니다.

아도니야는 자기 거위가 익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야는 솔로몬의 그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제단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처벌을 두려워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위를 찬탈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려 한 죄로 형에게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들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는 마음의 근심일 뿐이니라.

그러자 나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와, 왕께서 나를 보신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그는 왕이 독살당하는 걸 막기 위해 포도주를 맛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느헤미야의 슬픈 표정을 보았습니다. 마치 왕이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왕은 누군가 저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그의 슬픔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왜 슬퍼하는지 설명하고, 백성을 데려와서 바빌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야 할 거예요.

입니다 . 좋아요, 시편 1장입니다. 잠깐 여기서 읽어 볼게요. 사무엘상 12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두 가지 유형의 두려움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실패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2장에는 실제로 두 가지 유형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섬기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용어의 두 번째 용법은 두려움으로, 심판, 형벌, 그리고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에 주의해야 합니다. 순종과 섬김이라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같은 구절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은 섬기고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실패했지만, 결국 죄로 인한 형벌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회개와 신성한 왕에게 충성하는 종들을 통해 완화됩니다.

좋습니다. 시편 130편 4절에는 형벌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용서와 두려움, 용서와 두려움의 연관성을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력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용서하거나 벌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의 몇몇 비유에서도 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신비주의 가 아닌 다른 유형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트레멘덤(tremendum) 유형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대한 종교적 의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종교적, 법적, 도덕적 유형의 두려움입니다. 종교적 의식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제가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섬기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소, 제사, 예배라는 개념, 그리고 섬기고 순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순종을 촉발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의 순종을 목표로 삼는 수단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과 41절.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 중 몇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앗수르 왕이 “왕이 사로잡아 사마리아 성읍들에 두신 민족들은 그 땅의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 중 몇 명을 죽이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땅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앗수르 왕이 그 땅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제사장 한 명을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로 끌고 간 제사장들 중 한 명이 와서 벧엘에 살면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

좋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내려와서 급습해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기원전 721년, 722년. 아시리아 왕은 잔혹하게 그들을 함락시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겨졌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가면서 사자가 번성하여 일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지만, 그 후 다른 민족들을 데려와 사마리아 땅으로 송환했습니다. 즉, 이 시기에 아시리아 왕이 데려온 외국인들과 당시 가난했던 유대인들이 섞여 이스라엘에 들어와 결혼하여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사자들이 먹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이 땅의 신들이여, 우리가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관찰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시리아 왕이 “좋아, 유대인 제사장 코헨 같은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그가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제사, 예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은 그런 짓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가르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주님을 경외하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규례와 계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경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촉발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율례와 규례들도 가르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계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민족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산당에 두었습니다. 각 민족은 자기들이 살던 도시에 살았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켰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여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 산당과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했지만, 동시에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고,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주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민족들처럼, 그들은 마치 끌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이전과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러한 규례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는 정말 강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좋아요.

사무엘상이나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교도적인 의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교도적인 두려움, 그리고 실제로 이교도적인 것에 대한 저주, 그리고 저는 전도서 5장 7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봐, 전도서, 설교자야, 하지만 너는 그걸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전도서 5:7).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종종 걱정하는 바인데, 바로 그런 경우, 허영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좋아요, 말라기 2장 5절, 말라기 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레위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키려고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주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언약이었고, 그는 나를 두려워했다.

그는 내 이름을 경외하였느니라.” 네, 참된 교훈이 그의 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사이의 연관성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입술에는 어떤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와 밝음 가운데 나와 함께 걸었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백성은 그의 입에서 교훈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약의 조항들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교차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알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존경과 경외입니다. 자, 이것이 모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레위기 19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1절과 30절입니다.

좋아, 네 딸을 창녀로 만들어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 온 땅이 음행에 빠져 타락으로 가득 찰 것이다. 19, 30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것이 두려움이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말 '야레'인데, 이는 두려움의 어근입니다. 야레 아도나이, 야렛 아도나이. 이것에 대한 경외,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자, 당신은 성소를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경외합니까? 당신은 성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소는 마치 당신을 쫓아오는 개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것을 언급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죠. 존중, 존중. 좋아요, 노래 가사처럼, 존중하는 거죠.

성소는 존중받아야 했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대상은 존중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형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땅에 조각한 돌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성소를 두려워하라. 그것은 경외와 존경, 그리고 다른 종류의 경외와 두려움을 뜻한다. 음, 다시 레위기 19장에서, 너희 각자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곧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30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시다시피, 당신의 부모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 부모가 벌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측면도 한몫하지만,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맥락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들이 우리가 존경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 그게 바로 존경, 그리고 존경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음,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 봅시다. 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음,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현현이나 다른 것들을 볼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끔찍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규례에 관해서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계명과 율례를 촉발하거나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은 가르쳐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복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보라, 그가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겠느냐? 여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뭐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네 혀를 악에서 지키라. 잠언과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하나는 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바로 여기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네 입술을 거짓된 말에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네, 시편 34편 11절 이하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환유법 사이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에는 신성한 지시나 규례와 율법 사이의 이러한 신성한 연관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가르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까지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지킬 수 있느냐?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이다.

너는 기본적으로 내가 네 평생에 네게 명하는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켜서 네 날이 길게 하라.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보존하시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앞서 읽었듯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미가 6장 8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과 13절.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성읍 안에 있는 나그네를 모아서 듣고 배우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배우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모세가 이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위대하신 행적, 그분의 규례와 계명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주의하여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들이 듣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규례와 계명에 대한 두려움의 일부는 듣는 것을 통해 온다. 우리는 지혜 문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들으라, 너희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차지할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자,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건 시편 19장입니다. 그리고, 음, 제가 제대로 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시편 19편 9절입니다. 이건 시편 19편입니다.

경이로운 시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창공은 우리에게 어디든 보여줍니다. 낮은 낮과 함께 말하고, 밤은 밤과 함께 지식을 쏟아냅니다.

그 땅에는 언어나 소리나 말이 없지만, 그것은 피조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창조,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피조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전환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날 일은 이름이 붙은 신성한 지시의 유형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은, 결과와 결과, 결과와 결과, 결과와 결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결과는 신의 지시입니다. 네, 주님의 법이죠.

좋아요, 주님의 법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의 지시에 평등을 더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신의 지시, 율법, 칙령, 계명. 신의 지시를 받고, 그 질과 결과,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 주님의 법, 그것이 우리의 신의 지시이며, 완벽합니다. 그 질과 결과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지시는 확실하고, 그 결과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지시는 옳고, 그 결과는 확실하고, 그 결과는 확실하며,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지시는 순수하고, 그 결과는 확실하며, 눈을 밝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깨끗합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신성한 지시입니다.

그 결과는 깨끗함, 즉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신의 지시, 규례, 율법, 계명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고, 그것과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며 신의 지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속성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옳습니다. 이 경우에는 깨끗함이고, 그 결과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규칙과 병행해서 따릅니다. 다시 말해, 신성한 지시, 그 질, 주님의 규칙은 참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신성한 지시, 질, 질을 반복하며 그 패턴을 9절에서 분석하는데, 여기서 강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신성한 지시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음이니라."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르친 계명입니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과 계명의 연관성에 주목하세요.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시이며, 사람들이 가르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의견의 지배에 의해 유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보다는 그들의 진실을 찾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건 고전적인 이야기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계명의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은밀한 일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러한 계명, 곧 하나님의 섭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순종의 대리 또는 환유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기억하시죠? 시편 119편에는 위대한 두문자어가 있는데, 할렐로 시작하는 여덟 절, 알파벳 전체에 걸쳐 여덟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장엄한 두문자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은 뭐예요? 데이비드 이매뉴엘이 알려줬어요.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은 시편 78편이에요. 정말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와 당신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입니다. 그러므로 법도를 지키거나 순종하는 것은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와 동등합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즉 그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순종입니다. 네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은 순종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시여. 보세요, 이건 은유죠, 그렇죠?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릴 때, 거기에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린다는 뜻이죠. 네, 그분의 계명과 그 외의 것들에 따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깨닫는다. 마치 아침 햇살처럼 그것들을 깨닫는다. 그가 어떻게 환유에서 벗어나는지 주목하라.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다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게 어떤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유를 사용하여 그것을 여러 범주에 걸쳐 다양한 것들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다스리는 것, 즉 왕이나 하나님이 친히 명령과 계명, 율법을 내리시는 계명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다음에는 갑자기 딴 데로 튀는 거죠.

어떤가요? 그는 이러한 직유법이나 직유법을 일종의 은유로 사용합니다. 아침 햇살,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의 햇살,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비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아침 햇살,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의 빛나는 힘, 그리고 비와 같은 세 가지 직유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일종의 환유법으로 발전시켜, 신이 신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린다는 표현을 그의 표현으로 옮겨, 은유와 환유를 혼합한, 일종의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사합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점이네요.

자, 순종입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 순종입니다. 아케다입니다.

아케다. 아케다가 뭐죠? 저는 아케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다들 아시 다시피 창세기 22장, 그 유명한 아케다 구절이죠.

아케다는 묶음, 이삭을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북쪽으로 사흘 길을 가도록, 즉 예루살렘 주변을 돌도록 지시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실 것을 예표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요. 그들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걸 기억하시죠? 이삭이 "할아버지, 아버지, 뭔가 잊으셨어요."라고 말하는 게 기억나시죠?

불도 샀고 제사 준비할 재료도 샀어요. 그런데, 양은 어디 있죠? 여기 양은 없어요. "아빠, 그거 잊으실 수 있나요?" "아빠, 이제 늙으셨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패러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2절을 읽어 볼게요. 아브라함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칼을 든 손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신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과 떨림, 공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자, 나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즉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압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아들 이삭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알겠어요. 신께서도 여기서 뭔가를 배우셨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네가 신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어. 무슨 뜻이야? 신이 배울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신은 모든 걸 알고 있어. 알았어.

응, 응. 한번 해 봐. 다음에 또 해 보자.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그의 뒤에 뿔이 덩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더라. 순종함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노래 같네요. 신에 대한 두려움은 순종 외에도 광범위한 도덕적 두려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외국인들이 자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들은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과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걸 기억하시죠? "야, 우리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야."라고 말했죠.

아비멜렉의 왕이시여. 아, 왕께서 당신을 원하실 거예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시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당신이 제 누이라고 하면 왕께서 저를 죽이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이 제 아내이고, 왕께서 제 아내를 좋아하시니까요.

네. 창세기 20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과 다른 일들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일종의 일반적인 도덕성이죠.

그리고 당신이 일반적인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으니, 당신들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날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가도 돼요. 알겠어요.

창세기 42:18.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형들과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의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내려왔는데, 여기 요셉이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 바로의 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요셉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너희를 속이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아비멜렉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이집트인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명은 너희가 갇혀 있는 곳에 남겨 두고 나머지는 보내라. 너희 집안의 기근을 대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요셉은 그런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그들을 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두려움은 단순한 경건함입니다. 단순한 경건함이죠.

열왕기상 18 :3, 실례합니다. 열왕기상 18:3, 아합이 선지자 엘리야와 맞섰습니다. 갈멜 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웠습니다. 아합은 궁궐 관리인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세벨이 주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오바댜는 선지자 백 명을 데리고 50명씩 동굴에 숨겨 빵과 물을 먹였습니다. 하늘 오바댜, 이세벨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주님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 돌보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일종의 두려움, 즉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단순한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미덕입니다.

두려움은 미덕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 문학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 없고 정직했습니다. 흠 없고 정직했습니다. 덕이 있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악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것은 욥의 흠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흠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욥기의 전체 토대가 됩니다. 욥기 1장 8절과 9절이 욥기 전체를 구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은 흠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고발자인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Biblically Learning에서 제공하는 존 월튼의 영상을 통해 사탄, 즉 하사탄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들어보세요. 내 중 욥을 생각해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하신다. 온 땅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흠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절에서 말한 것과 같고 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덕을 함께 묵읍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무슨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무슨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것이 욥기 나머지 부분의 토대가 됩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사탄은 그의 모든 이유, 즉 자녀, 재산, 심지어 아내까지 그를 괴롭히고, 친구와 물건까지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것이 욥기 전체의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욥기 전체 구절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욥기 6장 14절을 보세요. 욥기 6장 14절은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례합니다. 자, 여기 또 덕이 있군요. 내 형제들은 급류처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구의 친절을 베푸는 것은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덕이죠. 그렇다면 원인, 결과, 혹은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 동기는 바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인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6장 4절이나 6장 14절에 이 구절에 대한 다른 번역이 있다는 게 흥미롭네요.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흥미롭게도 RSV, NLT, NIV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14절. 첫 번째는 NRSV에서 욥이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자는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는 것” 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도덕적 대우와 동일시된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NLT(신약성경)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NLT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절한 친구에게는 친절해야 하는데, 당신은 전능하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고소합니다.” 즉, 당신은 나를 고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때문에 당신을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NLT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의 길을 가는 반면, 첫 번째는 미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IV와 NET은 일반적인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전능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지라도 친구들의 헌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그는 일반적인 경건함의 의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RSV, NLT, NIV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된 것이 흥미롭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좋아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지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은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욥기 28장에서는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명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20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니라.

그리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악의 길에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마음 사이의 긴장이 있습니다. 지혜는 미덕입니다.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9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들었느냐? 잠언 9장 10절에서 들었노라.”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를 행하는 자는 다 좋은 깨달음을 얻으리니 주를 찬양함이 영원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찬양의 연관성에 주목하십시오. 잠언 8장 13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긴장감을 거듭거듭 목격해 왔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율법에 순종하고 악을 피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 그리고 악하고 패역한 말의 길을 나는 미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계신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면, 내가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자질을 너희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이러한 긴장감을 주목하라.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무력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마치 왕처럼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교만과 오만함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잠언 주석가 중 한 명인 마이클 폭스라는 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네. 마이클 폭스는 그의 권위 있는 잠언 주석서에서 잠언 1장 7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대한 훌륭한 주석서가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브루스 윌트키의 잠언 두 권짜리 저서입니다. 마이클 폭스의 잠언 두 권도 훌륭합니다. 두 권 모두 두 권입니다.

좀 더 작지만 아주 좋은 책으로는 데릭 키드너의 작품이 있습니다. 앤드류 스타인먼의 잠언 주석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쓴 것도 있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트렘퍼 롱먼이 쓴 잠언 주석은 분량이 꽤 됩니다. 그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이 책들도 잠언 주석에 아주 좋을 겁니다.

하지만 마이클 폭스는 잠언 1장 7절과 관련하여,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입니까?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처음이 곧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첫걸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즉,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전제 조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이 길에서, 두 번째 관점의 원리, 즉 지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인 첫 번째 원리, 이것에 대한 두 번째 관점, 시작, 신에 대한 두려움의 시작은 지식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 토대, 반석, 지혜의 반석, 그리고 지혜 문학의 기반은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을 번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지식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좋아요, 그게 기초예요. 반석이에요. 원칙이죠.

세 번째 관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 혹은 질의 핵심은 시작이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로, 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그 위험입니다.

프라임 립이에요. 네, 프라임 립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비유는 쓰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이죠.

지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높은 원칙은 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폭스는 이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한 후, 시간적 또는 전제 조건상 첫 번째인 지혜의 토대와 원칙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실제로 시작, 즉 지혜

추구의 첫걸음과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 세 가지 원리 모두와 함께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맥락에서, 저는 그가 시작, 즉 첫 번째 단계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잠언서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표식으로 사용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잠언 전체의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세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서 그는 우리가 배우는 이 구절로 잠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지식을 멸시한다. 그래서 그는 책을 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를 마치며, 이 모든 지시, 곧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아들에게 주시는 열 가지 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열 가지 지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긴 담화입니다. “내 아들이,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는 악한 남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악한 여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는 가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묘사하며, 8장에서 지혜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가장 장엄한 묘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지혜 자체가 지혜가 어떻게 세상의 창조와 질서에 관여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지혜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 곁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는 건축가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8장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가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9장 10절에서 열 가지 교훈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일종의 구조적 표식이죠. 그런데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 잠언 31장을 보면, 제가 잠언 31장이라고 말하는 순간, 다들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제 아내를 떠올립니다.

좋아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끝나죠? 잠언 31장, 30장, 그 끝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두문자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잠언 31장 끝에는 두문자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모두 포함한 22절이 있죠.

시편 119편의 두문자어와 비슷한 두문자어입니다. 여기서 "매력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찬양의 연결 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덕 있는 여인에게로 이어집니다. 저는 덕 있는 여인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지혜 부인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혜 부인으로 시작해서 지혜 부인으로 끝납니다.

이건 일종의 포괄성, 다시 말해 책의 끝맺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9장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후 책 전체를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마무리합니다. 시작 부분의 지혜 부인과 마지막 부분의 지혜 부인을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구조적 표식이네요. 그런데 전도서 1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은 어떻게 끝맺나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이 무슨 뜻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논의가 끝나고 나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책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구조적인 요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미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에 더 집중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언 2장과 5장은 잠언 2장, 4장, 5장입니다.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고,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달으리라.

좋아요, 그럼 당신은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보화처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더 이상 두려움과 떨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3절, 12절과 13절, "나는 지혜와 명철을 함께 거하며 지식과 분별을 얻으나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반대 명제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교만과 오만, 그리고 악한 길과 왜곡된 말을 미워합니다. 교만과 오만은 다시 한번 교만이며,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죠. 저는 자라면서 이 구절을 외웠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모든 길로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네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십시오. 교만, 교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의 연결은 이제 겹손으로 이어집니다.

좋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악에서 떠나는 것, 즉 도덕적이고 덕스러운 일, 즉 악에서 떠나는 것이 당신의 육신에 치유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구절이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훈계이며, 겹손은 존귀에 앞선다." 이 구절은 여기서 평행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겹손과 평행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여기서서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훈계요 지혜이며, 겹손은 존귀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여기서 겹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은 덕입니다.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지만, 경외하는 자는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경외 또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아마도 그 의미를 놓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순종을 의미할 것입니다. 계명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4장 26절과 27절에는 잠언 쌍이 나옵니다. 사실, 잠언을 여러 군데 살펴보니, 잠언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잠언이 수백 개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 10장과 그 이후의 잠언들이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잠언들이 짝을 이루는 경우가 무려 124쌍이나 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제 강의를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다음 구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것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은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분명 아주 긴밀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짝은 정말 많습니다. 음,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속담처럼 짝이 있죠.

잠언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강한 확신을 갖고, 그의 자녀는 피난처를 얻습니다. 27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환유가 생명의 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하세요. 이는 죽음의 울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일종의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대조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장수하게 하지만 악인의 연수는 짧아집니다. 여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장수하게 하지만 악인의 연수는 짧아집니다. 악인은 보통 악인과 의인에 비유되거나, 반대로 비유됩니다.

이런 일이 적어도 백 번은 일어납니다. 잠언에는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의로운 자를 비유하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한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길을 가는 자는 그를 멸시합니다. 좋습니다. 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이사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 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은 오실 것이었습니다(이사야 11장). 그리고 주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지혜를 취하십니까?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 다시 한번,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일종의 평행 사상, 동의어적 평행법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은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형벌이나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순종과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땅의 온유한 자를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메시아 왕으로서 그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 결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느니라.

그리고 메시아 왕이신 그분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분은 주님의 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잠언 24장과 21장은 다른 형태의 하나님 경외에 대해 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잠언 24장과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여,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서, 여호와와 왕에게서 닥쳐올 것이다."

다시 말해, 왕과 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온갖 일을 하실 수 있고, 당신은 무력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가져올 파멸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주 흥미롭죠. 그리고 왕들은, 다른 곳에서 배웠듯이, 만왕의 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드러나는 거죠. 글썄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개념과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 두려움과 신뢰. 우리는 이미 그런 걸 겪었잖아요.

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오푸스 오페라툼' 같은 거죠." 다시 말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말했듯이, 잠언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속담은 약속이 아닙니다. 속담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속담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영상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언이란 무엇일까요? 잠언은 약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잠언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잠언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잠언은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100%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잠언의 의미를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나름대로 진실에 도달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역사서가 진실에 도달하는 방식이 시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쨌든 잠언과 마찬가지로, 게으른 손은 가난을 초래합니다. 게으른 손은 가난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과 인격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인격은 결과를 낳습니다.

잠언의 근본적인 근간은 바로 성격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잠언서의 근본적인 흐름입니다. 성격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성격은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 결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저는 '성격 결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게으른 손은 가난을 초래합니다. 게으른 성격, 게으른 손은 무엇을 초래할까요? 가난을 초래합니다. 네, 하지만 부지런한 손, 부지런한 자의 손, 그런데 부지런한 손과 게으른 손은 둘 다 자율권이잖아요, 그렇지요? 당신의 게으름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손이 나른해. 저 손은 나른해. 이 손은 부지런해.

저는 왼손잡이에요. 이 손은 부지런하죠. 알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손은 대리인이고, 그 사람의 자율권이야.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잠언에 나오는 보장인가요? 아시잖아요, 이건 피연산자예요. 마치 신이 이 로그에 대수를 넣는 것과 같아요. 로그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니, 아니,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왜 우리가 신을 두려워해야 하죠? 만약 신이 그저 카르마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거대한 기계라면 말이죠. 아니, 아니죠. 우리가 신을 보는 관점은 신이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결과를 통제합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이 기본적인 움직임은 인격적 결과 또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통제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결과를 연결하십니다. 결과를 정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해야 할 자입니다. 네, 잠언 21장 30절과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어떤 지혜도, 어떤 명철도, 어떤 조언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지혜와 지식 등을 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전쟁의 날을 위해 준비되었다. 말은 전쟁의 날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러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환유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결론을 내리고, 이 모든 것을 결론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좋아요, 제가 쓴 논문 몇 개를 읽어볼게요. 감정적이고 문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창세기 31장과 42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환유적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에서 말이죠. 이삭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한 환유입니다.

응답은 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법률 자료에서 환유적으로 그 의미를 인접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행기를 가로질러 이쪽으로 가는 길에 법적 자료는 법령을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법령, 규례, 법, 그리고 법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순종을 대신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또한 그 행위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행위는 순종입니다. 그 동기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방식이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집단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 안에서 주님에 대한 경외는 지혜, 지식, 이해, 그리고 의로움, 인격의 근원, 덕의 근원과 같은 다른 용어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나오는 이러한 예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감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용어는 나중에 관례화되어 신을 두려워하는 인물 집단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유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본래 의미가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환유는 편하하지 않으면서도, 엉성한 동의어로 전락하지 않고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지혜, 순종, 계명 등 여러 복잡한 의미를 지닌 동의어로 축소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 의미를 뒤섞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탐구해 온 모든 의미를 취합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읽을 때마다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문맥을 살펴봐야 하며, 문맥은 그 차이를 구분해 줍니다.

이제,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러한 의미들과 주목할 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범주들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환원주의적 사고를 이 모든 것들의 보편적인 배경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했지만, 이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그저 주님의 법이나 규례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조심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제가 뭔가를 제시해 볼게요. 환유, 은유 같은 거죠. 앞서 말했듯이, 그는 나무와 같을 겁니다. 범주를 넘나드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문이시니, 양들이 들어오게 하는 문이시니.

좋아요, 주님은 반석이시죠. 좋아요, 이건 은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환유에 대해 이야기해 왔죠.

메타포노미(metaphonymy) 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

좋아요, 은유와 환유가 합쳐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든 차트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종류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신의 왕으로 시작합니다. 신이 왕이시거나, 사실 인간 왕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과 왕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왕, 하지만 신의 왕은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은유로, 하나님을 목자처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스승인 돈 파울러에 따르면 시편 23편의 목자는 기본적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곧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읽는다면, 시편 전체가 서로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시편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시편 마지막에 나오는 왕의 잔치는 양 떼를 데리고 숲으로 나간 목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유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라는 말을 받아들이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일들, 곧 왕이심을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왕이시며, 시편에서 왕은 위대합니다. 시편에는 시편, 왕, 그리고 평소 곤경에 처한 시편 기자, 그리고 원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성한 왕, 고통받는 시편 기자, 그리고 시편 기자를 공격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원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왕에게서 신현(神現)이 나타납니다. 신현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두려움에 떨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좋아요, 신은 신성한 왕이며 정의를 베푸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을 알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왕들, 그 시점까지 다른 모든 왕들은 전투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5장에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여, 다윗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솔로몬, 살롬의 사람,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정의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측면에서, 솔로몬이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라, 아니, 지혜의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두 여자가 아기를 데려왔는데, 한 명은 죽었고, 다른 한 명은 죽었죠. 그래서 아기를 서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결국 솔로몬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긴 전투가 아니라 지혜의 승리입니다.

전장에서. 그래서 그의 지혜로운 승리는 아기를 둘로 자르는 것이고, 황, 그러면 누가 진짜 아기의 어머니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 분배 정의는 왕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왕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이자 입법자입니다. 왕들은 법을 제정하고, 그는 현명한 현자입니다. 왕은 우리에게 잠언을 주는 분입니다.

이것들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좋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신 왕이시여.

이제, 신성한 왕이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들로부터 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환유법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왕이라는 은유를 얻게 됩니다.

좋아요. 신은 왕이라는 은유입니다. 이제 이런 환유법이 생겼네요.

하나님이 은유에서 말하는 다양한 역할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도표에는 은유와 환유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현 공리(神現共理)에 대한 신성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나 홍해를 건널 때 신현으로 나타나십니다. 신성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시내산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는 압도적이에요. 놀랍고, 훌륭해요.

그는 위대합니다. 너무 위대해서 우리의 뇌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좋아요. 신성한 두려움, 루돌프 오토, 신비 tremendum 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하기도 하죠. 좋아요.

두려움에 대한 심판. 왕은 할 수 있고, 신성한 왕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처벌의 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 아버지는 개구리 노와 같습니다. 그냥, 거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가 설명했듯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경외심과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곧 성소를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외와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연결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의 규례, 율법, 율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환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9편,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다른 시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종종 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외에도,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악에 대한 증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곧 악에 대한 증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인격과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과 결과를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욥의 경우는 꽤 흥미롭습니다. 잠언 역시 하나님께서 인격과 결과를 연결하시는 방식에서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겸손, 즉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겸손함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정의. 정의. 우리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가 통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아비멜렉처럼,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심지어 바울조차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그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일반적인 도덕성과 그 외의 것들을 가진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저의 말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신학적 개념을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삶의 의미와 경험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모든 측면을 어떻게 경험하시나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된 한 가지 예는 제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제 아들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해병대원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 파병되었는데, 정말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힘들죠.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이라크에 파견되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이라크인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그다지 전사적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전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193cm 정도에 110kg 정도의 덩치가 크고, 강인한 해병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한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라크에는 전사들이 없었지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와, 저기 있는 애들은 전사들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 온, 전에 본 적 없는 전사들이었어. 해병대원들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법을 배워서 요격하고, 해병대 특유의 패턴으로 이들을 잡을 수 있었지." 정말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어쨌든, 그는 거기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우리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를 배웠죠.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이가 넷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십 대 자녀를 키우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들 모두 각자의 특별한 성장과 좌절을 겪었고, 그게 정말 좋았어요. 저희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도 서로 사랑하는데, 이제 다 컸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크라운, 제 딸은 이제 마흔이 넘었어요.

음, 어쨌든,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요. 그가 전화해서 "28일 동안은 전화 못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마 철조망 밖에서 "철조망 바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는 보병이었는데, 말 그대로 부츠였죠. 그는 밖에 있었고, 그들은 매일 총격을 당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알 수 없죠. 그는 머리에서 15cm 떨어진 총알 소리와 90cm 떨어진 총알 소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은 소리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총알이 그렇게 가까이 날아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아들의 목숨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신께, 감사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무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기에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미친 개, 로트와일러 같은 개에게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로트와일러에게서 아이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아들이 3,200km나 떨어진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사람들이 총을 쏘고 있으니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휩싸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존과 신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믿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쉽습니다. 아니, 모르면 힘듭니다. 제 아들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고, 폭발에 맞거나, 반쯤 폭발해서 30미터 높이로 날아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들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은 순종과 찬양과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력감에 대한 이 공포는 겸손함을 느끼게 하고, 우주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순종과 예배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두려움 과 같은 순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나가세요. 그것들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무섭고 힘든 일들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또한 겸손한 자세에서 우리나라는 두려움과 연결되며, 교만이나 오만, 악에 대한 증오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교만이나 오만 없이 악을 미워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맥락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모두 섞어 쓰지 마세요.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맥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라. 감사합니다.